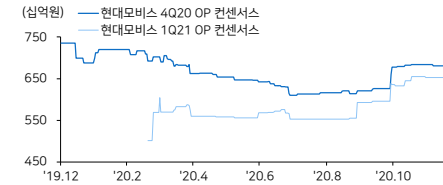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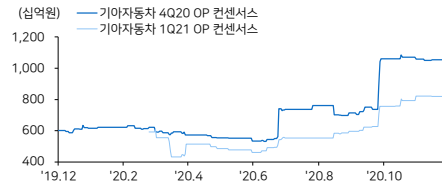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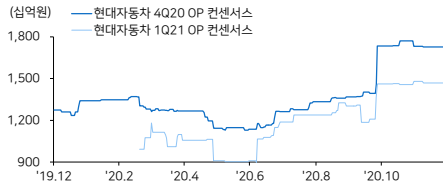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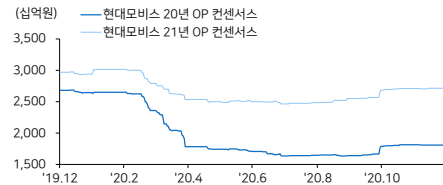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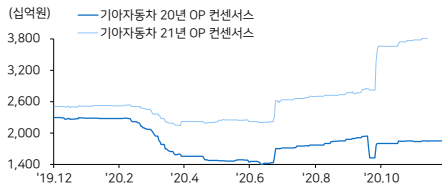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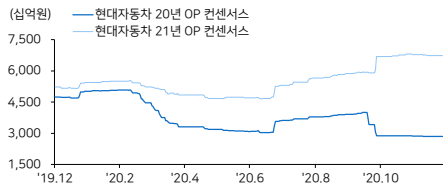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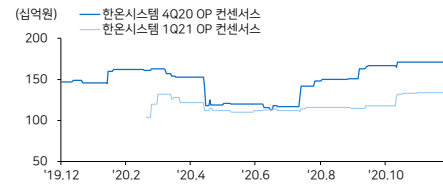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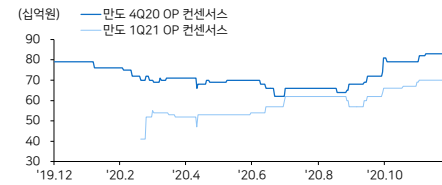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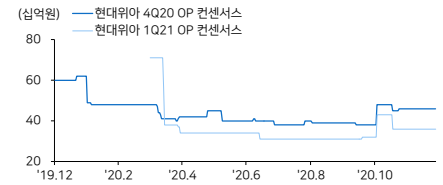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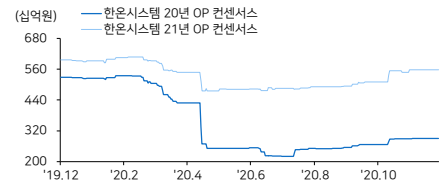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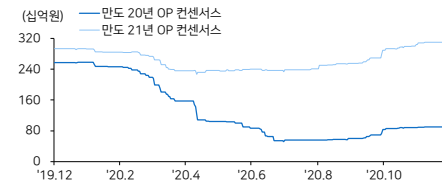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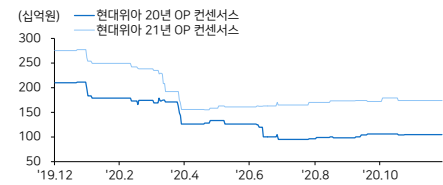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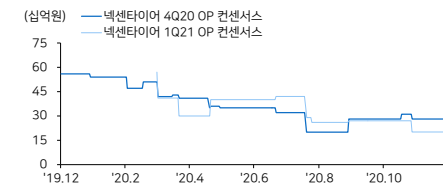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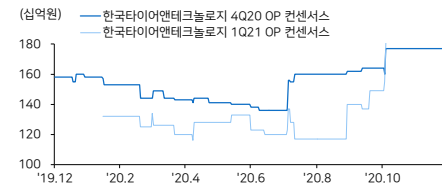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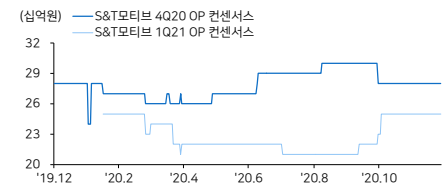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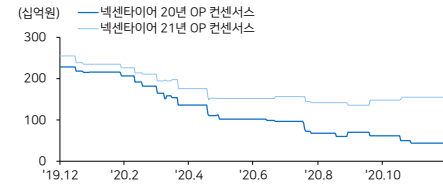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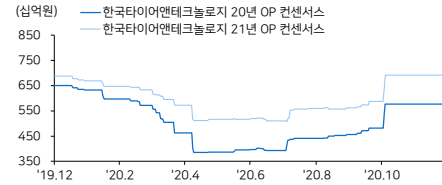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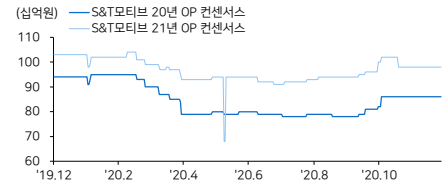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인도서 최대 수 수출 업체로 '우뚇' (글로벌이코노믹)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승용차 최대 수출 업체로 자리매김. 외신 카에일에 따르면 현대차 인도법인인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5만4641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인도 최대 자동차 업체 마루티 스즈키를 제치고 1위를 차지. <https://bit.ly/2KKJyoO>

전력의 'K-배터리'... 현대차 'E-GMP' 3차 입찰 하이니켈로 승부 (전자신문)

새해 국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역대급 입찰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됨.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 E-GMP 기반의 '하이오닉' 배터리 공급사 선정 입찰. 약 10조원에 이르는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https://bit.ly/38FKXHA>

코로나19로 자동차도 안전 중시...자동차는 '세상과의 연결고리' (쿠키뉴스)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7%는 자동차는 현 상황에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필수 요소이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함. <https://bit.ly/2JxZFzK>

중국 1위 지리차 배터리시장 진출... 글로벌 '전기차 어벤저스' 출현, 한국업체 겨냥 (디지털타임스)

중국 1위 완성차 업체 지리차와 중국 톈5권 배터리 업체 파라스. 그리고 유럽계 다임러와 볼보가 합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합작이 성사됨. 한국 업체들이 소모적 내분 때문에 몰두한 사이 중국에서는 발빠르게 글로벌 '전기차 어벤저스'를 먼저 탄생시켰다는 평가. <https://bit.ly/34RAKUS>

현대차도 기아차도, 11년만에 '임금동결'...코로나 위기 극복 (매일경제)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도 11년 만에 임금(기본급)을 동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에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마무리. <https://bit.ly/38Fpxba>

코로나 시대 '현대모비스, 특화 자동차용품 눈길 (픽스넷뉴스)

코로나로 인해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오랜시간 차량 이용시 필요한 용품들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현대모비스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코로나19시대에 특화된 자동차용품에 시장에 연이어 선보이고 있음. <https://bit.ly/3nXvuXi>

넥센타이어, 2023년 5300만개 판매한다...글로벌 '톱10' 디딤돌 (더그루)

넥센타이어가 오는 2023년까지 타이어 5300만개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움. 이를 토대로 강화한 부회장이 염원하던 글로벌 타이어 시장 '톱10' 진입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 다만 코로나19가 변수. 팬데믹이 재현될 경우 가동률 하락이 불가피. <https://bit.ly/3hgdKuO>

폭스바겐, '전기차 충전로봇' 프로토타입 영상 선보이며 (비블로리)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 맞춰 폭스바겐이 움직이는 전기차 충전로봇을 만들고 있음. 최근엔 이 로봇의 프로토타입 영상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음. <https://bit.ly/3hubkBG>

Compliance Notice

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